



## 이진풍 헨켈 테크놀러지스 산업용 접착제 사업부 상무이사 “접착제 역사가 곧 헨켈의 역사” 이노베이션이 만든 혁신적 제품 공급

헨켈 테크놀러지스 이진풍 상무이사는 만 24년 동안 접착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핫멜트 제작업체인 태경(이후 빅솔로 사명 변경)에 1989년 입사한 뒤, 2007년 내셔널스타치가 빅솔을, 2008년 5월 헨켈이 내셔널스타치를 글로벌 인수합병하기까지 한국 접착제 역사와 함께 했다. 현재 헨켈에서 만 6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산업용 접착제 사업부 중 제책·포장사업부 영업 담당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 귀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헨켈 접착제 사업부는 크게 산업용, 자동차 및 금속표면처리용, 엔지니어링용, 전자전기용, 소비자용의 5개 사업부로 조직돼 있습니다. 산업용 접착제 사업부에는 10개의 서브 사업부서가 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제책 및 포장 사업부를 포함해 위생용품, 티슈, 연포장, 의약 패치 및 산업용 테이프, 목공 및 건축, 담배, 신발용 사업부로 이뤄져 있습니다. 산업용 접착제 사업부의 경우 소비자 생산과 관련된 모든 접착제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제책 및 포장 관련 제품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우선 제책과 관련된 제품으로 일반 EVA 핫멜트 접착제, 다기능성(Multi-purpose) 핫멜트 접착제, PUR(반응형 폴리우레탄) 접착제, 젤라틴 접착제, 수성 접착제(Water Based Adhesive)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접착제는 단행본, 참고서, 교과서, 양장본, 월간지, 앨범 등 제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제품은 일반 EVA 핫멜트 접착제, 하이테크 버전인 폴리올레핀 핫멜트 접착제, 라벨용 수성접착제가 있습니다. 포장용 접착제는 주로 라면, 음료, 제과, 제약 분야의 포장 용기 접착과 제지가 공, 빨대 접착, 종이 및 필름 라벨 접착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헨켈의 2013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접착테크놀러지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3년 회계연도에 헨켈은 글로벌에서 약 163억5500만 유로(한화 약 2조 3877억)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접착테크놀러지스 부문은 81



억1700만 유로(한화 약 11조 6073억)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의 신흥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동유럽 및 아프리카·중동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산업용 접착제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23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헨켈 산업용 접착제 사업부는 약 38%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출판 제책용 접착제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130 ~ 160억 정도의 시장규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으로 디지털미디어의 접착이 대중화되면서 종이책을 찾는 독서 인구가 감소해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약 15 ~ 17% 가량 시장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책시장의 축소 경향은 향후 1~2년은 더 지속되리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출판사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생존을 위한 제조 원가 절감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책용 접착제의 경우에도 중간 그레이드의 중고가용 제책용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저가용 EVA 시장과 품질을 중요시하는 고급 PUR 및 다기능성 접착제 시장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용 접착제는 2013년 기준으로 약 190 ~ 220 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 침체로 인해 올해는 정체되거나 1~2% 정도로만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포장용 접착제 시장에서 헨켈은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헨켈은 혁신적인 특수 접착제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출판 및 포장인쇄에 적용될 접착제에는 어떠한 혁신적인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제책 부문에서는 하이테크 버전인 다기능성 접착제(TM Q Series)와 쿨바인딩 접착제(Cool binder), 그리고 PUR 접착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책용 핫멜트 접착제는 일반용, 아트지용, 전차리용 등 기능에 따라 3개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기능성 접착제는 이들 용도에 모두 적용이 가능해, 재고관리가 용이하고 작업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 또한 일반 EVA 핫멜트에 비해 월등히 뛰어납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쿨 바인딩 접착제'도 헨켈만의 독자적인 혁신 제품입니다. 제조원이 측면에서 보면 전력 소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일반 EVA 핫멜트는 180°C의 고온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소비도 많았지만, 헨켈의 '쿨바인딩 접착제'는 그보다 60°C가 낮은 약 120°C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전력비용 절감 및 사용자의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무선 제책 라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냄새도 거의 없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기대됩니다.

헨켈의 'PUR 접착제'는 탁월한 유연성과 강한 접착력, 내열·내한·내용제성을 갖춘 고성능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PUR 접착제의 경우, 그동안 긴 경화시간과 점도 안정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으로 현재는 기존 경화시간을 3배 이상 단축하고, 점도 안정성도 개선해 경쟁사 대비 품질 우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포장 부문에서는 기존 EVA 핫멜트 접착제보다 사용량을 15% 이상 줄일 수 있는 폴리올레핀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 중입니다. 접착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적어 작업 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라벨용 수성 접착제는 헨켈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합성아크릴 베이스를 이용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내수성과 내향균성이 우수하고, 사용량을 절감하며 공급안정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페트병 라벨 접착에 사용하는 점착제의 경우 수해리성 기능을 더해 페트병 재활용에도 기여를 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헨켈은 세계 접착제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헨켈은 13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접착제의 역사가 곧 헨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2000명이 넘는 R&D 인력이 전 세계 10개 핵심 연구소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Innovation)이 아마도 헨켈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술만 있다고 해서 마켓 리더의 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헨켈은 1차원적인 접착제 공급업체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헨켈 테크놀로지스의 미래비전은 무엇인가요?

헨켈은 '브랜드와 테크놀로지를 보유한 글로벌 리더'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기업으로서 고객을 중심에 놓고 단순화된 운영과 사기가 충만한 팀을 통해 경쟁사 대비 탁월한 실적을 달성한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있어서도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자원 사용을 현재의 1/3로 줄이면서도 현재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새로운 전략과 계획을 세워 각 국가별, 생산기지별로 체계적인 관리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